

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3가지 방안 발표

2025년까지 LNG연료선 발주 등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현대중 등과 지자체 공동 출연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조선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몰입하는 한편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3가지로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이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으로 전환하도록 내년에 2척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2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부산, 경남, 울산) 및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병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병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별도의 LNG병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 금융애로 지원방안도 내놔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진행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존은 내년 말까지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에 준다.

특히 이번엔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담당자를 면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고용애로 사항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단기적 활력제고뿐 아니라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키로 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2030년에 핵심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조선업계·전북도 등 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정보 '한눈에' 250대에 전자노선도 설치

전주시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노선도 설치한 버스 위치, 주요 환승 정류장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420대의 전주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와 명품버스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250대에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노선도를 설치 중이다.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까지 1차로 250대에 설치한 후 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까지 나머지 170대에 대해서도 전자노선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존 인쇄물방식의 노선도는 작은 활자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었고, 노선 변경 시 전면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새로 설치될 전자노선도는 버스 내부에 설치되는 LCD 모니터를 통해 전체노선,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 주요 환승 정류장 정보 등을 안내한다.

특히 도착정류장을 한글과 영문, 중문, 일문으로 표출해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노선도 설치 위치는 이용객이 보기 편하고, 시내버스 운행 중 충격이나 전자노선도 하중을 견디기에 적합하도록 저상버스와 대형버스는 하차 문 옆, 중형버스는 운전자 뒤편으로 각각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 팔복예술공장 탈바꿈 '결실' 행안부장관상 수상

전주시가 정부의 국정목표를 잘 실천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오랫동안 받쳐왔던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인 팔복예술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도약기에서 확산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정목표 실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산·공유시키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는 '2005년 지방혁신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시작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전국 99개 사업·정책이 응모했으며, 1~2차 내용 심사를 거쳐 전주시 등 우수사례로 선정

된 7개 지자체가 결선을 벌였다.

시는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 '팔복예술공장'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팔복예술공장은 2016년 정부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쇠퇴해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인공기업, 근로자,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가 회복됐

며,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공간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서화동예술촌 마을 재생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조성 등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주민의 이색적인 문화로 부활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팔복예술공장이자.

한편, 이번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서울 성동구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발전 위해 '똘똘'

전국체전 성공 기념 도내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담회

지난 10월 전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화희와 감동을 선사해 준 시·도 체육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국체전 성공개회 기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담회'가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도 사무처장들은 이번 대회의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



련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시·도 체육회가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OCI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OCI는 그 동안 작은 부주의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군산공장의 설비와 시스템 개선, 안전 의식 향상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미흡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OCI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작업 현장을 근본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쇄신함으로써 군산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빈틈 없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OCI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